

## 7년도 안 남은 우리의 시간, 50년 목표는 공허한 약속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정상훈

지금 전세계는 온실가스 배출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기후위기가 이제는 우리 눈 앞에서 너무나 자명하게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미국 텍사스는 이상한파로, 호주는 초대형 산불로, 그리고 지난해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는 극심한 홍수로 신음했습니다.

결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유엔 IPCC의 권고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 사회를 목표로 하자는 것이 이제 한국사회에서도 큰 화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탄소중립이면 충분한 걸까요? 아니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장기 목표만을 생각하다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2050년 목표가 아닌 2030년 목표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2050년 목표는 앞으로 중단기 계획이 잘 짜여지고 실행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데에 점점 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미국을 중심으로 전세계가 모여 기후위기 대응을 논의하는 기후정상회의를 보셨다면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많은 국가들이 보다 야심찬 2030년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2005년 대비 50-52%를, 영국은 35년까지 78%를, EU는 55%를 재확인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일본마저도 2013년 대비 46%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번 회의에서 공적금융기관의 해외 신규석탄투자 중단을 선언한 것은 환영할 만 하지만 전세계 주요배출국들의 노력에 비하면 여전히 우리나라의 책임과 역량을 고려한 기후위기 대응에서는 뒤쳐지는 모양새입니다.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7년 대비 24.4%입니다. 과학계와 국제사회의 요구는 최소 10년 대비 45%, 17년 대비로 하면 절반 이상을 감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고 도전적인 목표라는 것을 시민사회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에게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기후과학과는 협상이 불가능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1.5도 목표를 지킬 수 있는 시간은 7년도 되지 않습니다. 2018년 IPCC 1.5도 특별보고서는 당시 기준으로 앞으로 4,200억톤 이상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면 1.5도 선을 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토지 사용까지 포함 매년 420억 톤 정도를 전세계가 배출한다는 가정 아래 이 정도의 시간이 남은 것인데, 배출할 수 있는 탄소의 양은 이제 2,800억톤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건 사실 탄소예산이 아니라 탄소시한폭탄이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6년 정도 되는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결국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해도 무의미한 것입니다. 따라서 2030년 목표에 보다 집중하고 해마다 어떻게 이행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기후위기대응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소개해주신 영국의 사례를 통해 보더라도 우리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안이 실제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에 보조를 맞추고 최신 과학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법안에는 2050 장기 목표 뿐만 아니라 2030년 중단기 목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지난해 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은 큰 진전이지만 상황이 많이 바뀐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2030년 목표와 함께 수시로 이행을 점검하고 행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영국이 기후변화법을 통해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의 자문기구를 구성한 점에 유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저탄소녹색성장법에 따라 녹색성장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산하로 있긴 하지만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한계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도 새로운 시도를 하긴 했지만 결국 다양한 옵션을 나열하는 식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학을 기반으로 설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 제정 과정에서 영국의 CCC처럼 전문가들의 자문과 참여, 모니터링 등 이들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학을 기반으로 목표를 잡아서 사회와 시장의 혼란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선택입니다. 또 기후위기 대응법은 용어 선택에 있어서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의 의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법은 한 번 만들면 고치기 어렵고, 또 향후 행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소홀히 한다면 해당 법 조문이 이를 압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선 시급한 기후위기에 초당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의무화할 수 있는 기능을 할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진보정권만의 문제가 아니고 보수정권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과감한 목표를 발표한 영국 집권당도 보수당 정권이며 일본 역시 보수정당인 자민당이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미국은 진보성향인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에서도 기후위기에 관련된 초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둘째,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은 오히려 우리 기업 경쟁력에 약이 될 것입니다. 이번 기후정상회의에서도 많은 참가국들이 카본 프라이싱(carbon pricing)을 언급하였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기업이나 노력하는 기업들에게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고, 반대로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산업과 기업들에게 제재는 불가피합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면 저탄소 경제만이 살 길이 될 것입니다. 법으로 이런 방향을 잡아주면 탄소 감축과 함께 재생에너지 발전도 늘고 우리 경제 발전에 결국 도움이 됩니다. 기후정상회의에서 영국 보리스 총리가 이번 기후정상회의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경제를 성장시키고 해상풍력의 세계적 강국이 되었다고 자랑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셋째,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보다 공정한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지

금 전세계 국가들이 내연기관 퇴출,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 산업 발전 중단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화석연료 중독을 끊지 못하고 있다가는 이류 국가로 전락할 겁니다. 2019년 영국 금융 싱크탱크인 카본트래커가 낸 보고서를 보면 조사대상국 30여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좌초자산 규모가 세계 최대 수준이었습니다. 탄소중독을 끊지 못하면, 빨리 전환하지 않으면 이 분야는 모조리 좌초되고 실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전기차 전환을 잘해나간다면 이 분야에서 많은 일자리가 나옵니다. 다른 나라에 선점당하기 전에 빨리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환기는 사회개혁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보다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앞으로 기후위기와 이상기후 현상은 더욱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온실가스와 세계 대전을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어떤 나라도 전쟁에 나설 때 패배하기를 원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기후위기라는 적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기후위기는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탄소배출을 줄이지 못했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행복한다고 살려주지 않습니다. 대응해 함께 살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회의가 열리는 이 자리가 전경련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기업 처지에서는 당장 탄소배출을 줄여야 하니 뼈를 깎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산업은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경제부터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오히려 기업들이 더욱더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소니 등 92개 메이저 기업들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50%로 늘려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나이키 등 3백 개 기업들이 기후정상회의 이전에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미국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계의 대응과는 너무나 비교됩니다. 전경련은 과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기후위기는 우리의 생존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조기 암에 걸린 환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암 말기로 더 상황에 심각해지기 전에 수술대에 오르는 것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기후위기라는 병을 더이상 고칠 수 없는 수준이 되기 전 치료받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